



올리브 산의 그리스도

고갱(Paul Gauguin, 1848~1903)
1889년, 캔버스에 유채, 72.4x91.4cm
노턴 미술관, 미국 웨스트팜비치

입당송 | 시편 68(67),6-7.36 참조

하느님은 거룩한 거처에 계시네. 하느님은 한마음으로 모인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고, 백성에게 권능과 힘을 주시네.

제1독서 | 창세 18,20-32

화답송 | 시편 138(137),1과 2ㄴ,2ㄱ과 3,6-7ㄴㄷ,7ㄹ-8(◎ 3ㄱ 참조)

◎ 주님,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은 응답하셨나이다.

○ 주님,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제 입의 말씀을 들어 주시기에,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거룩한 성전 앞에 엎드리나이다. ◎

○ 당신은 자애롭고 진실하시니,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이 응답하시고, 저를 당당하게 세우시니, 제 영혼에 힘이 솟았나이다.

○ 주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이를 굽어보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

를 알아보시나이다. 제가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원수들의 분노 막아 저를 살리시나이다. 당신은 손을 뻗치시나이다. ◎

○ 주님은 오른손으로 저를 구하시나이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주님, 당신 자애는 영원하시옵니다. 당신 손수 빛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

제2독서 | 콜로 2,12-14

복음환호송 | 로마 8,15 참조

◎ 알렐루야.

○ 우리는 성령을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하느님께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네. ◎

복음 | 루카 11,1-13

영성체송 | 시편 103(102),2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김홍주 베드로 신부 | 계성고등학교 지도신부

모든 사랑의 시작, 아버지 하느님!

여러분이 처음 체험한 사랑은 무엇이었나요? 아마 대부분 비슷하시겠지만, 저 또한 바로 부모님께 받은 사랑이었습니다.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신앙인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 손위로 누이 네 명을 포함하여 다섯 자녀를 둔 대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묵묵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고, 자녀들에게는 늘 온유하고 겸손하셨으며, 한 번도 화낸 적 없이 넓은 마음으로 저희를 보듬어 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 매일 예닐곱 개나 되는 자녀들의 도시락을 준비하느라 분주하시면서도 묵주기도를 포함한 아침기도를 한 번도 거르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신 후에는 늘 일터로 나가 바쁜 일과를 보내셨지요.

그때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해드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자녀인 저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좋은 것들을 주신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심지어 두 분은 제가 중학교에 들어간 이후로는 저의 시험 성적표조차 확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기만을 바라셨을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와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면, 상대방에게 나의 소중한 것들을 내어 주고 싶고, 또 상대방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설령 상대방이 나를 실망시킨다고 해도, 어떻게든 이해하고 용서하기 위해 애쓰니

다. 사실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 “나의 사랑은 나의 무게(Amore meus pondus meum)” 《고백록》 13권 9장 10절)라고 하셨듯이, 사랑은 그 자체로 올바르게 향하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누는 사랑의 시작은 바로 하느님께로부터 옵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처럼, 아브라함의 모든 청원을 어떻게든 들어주고자 하시는 하느님 사랑의 체험이 우리 삶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받은 사랑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 안에서 말이지요. 하느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은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하게 하고, 이는 곧 타인을 향한 사랑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루카 11.13)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향한 사랑의 길로 초대해 주신다는 믿음을 굳게 가져야 합니다.(골로 2.13 참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간절히 청하는 기도와 내가 받은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실천을 통해 말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화답송 참조) 이번 한 주간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희망합니다. 아멘.



✍️ 주님의 기도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직접 알려주신 기도에서처럼, 당신을 죽이려는 이들을 용서하시며 올리브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고갱은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시는 밤을 푸른 색으로 묘사하고, 머리카락을 붉게 표현함으로써 그분의 고독과 복잡한 심경을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아브라함이 애써 의인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한밤중에 벗에게 급히 도움을 청하듯 ‘주님의 기도’에 기대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청합니다.

오주열 안드레아 신부 | 삼양동(선교)성당 주임

두 번째 종소리



윤경호 바오로 배우

영화 속 주인공이 운명의 순간을 맞이하면, 어디선가 낭랑하고도 아름다운 종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딱 두 번의 종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의 아내를 향한 짝사랑이 이루어졌을 때, 두 번째는 한 남자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작품이 끝나고 뒤풀이 장소였는데 사람도 많고 시끌벅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란을 뚫고 한 남자가 스욱 제 곁으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경호 씨! 경호 씨도 천주교 신자라고 들었는데 혹시 우리 ‘광대승천 제네시오’에 함께하지 않을까요?” 그 남자는 바로 양주호 베드로 형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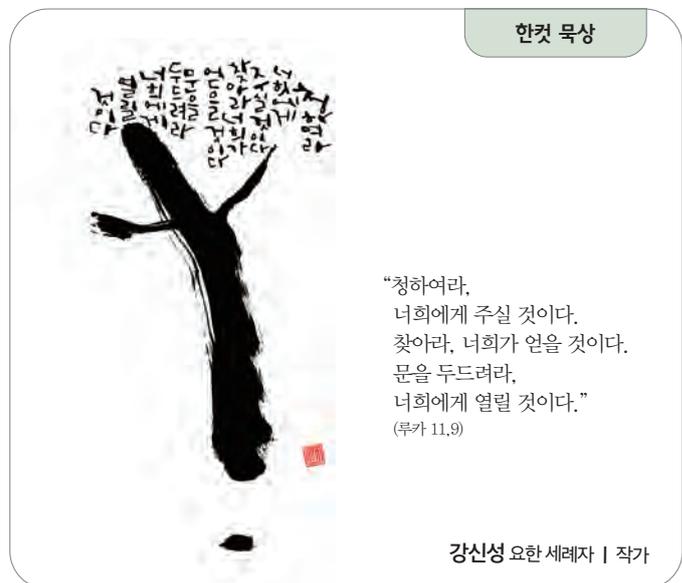
‘광대승천 제네시오’는 가톨릭 신자인 배우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그 초대를 받은 순간, 제 귀에서는 딸랑딸랑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의 초대가 어찌나 반갑고 기쁜지 하마터면 형님을 안아버릴 뻔했습니다. 이렇게 기쁜 일이 생길 때마다 또 슬픈 일이 생길 때, 고민이 생겼을 때나 재미있는 일이 생겼을 때 저는 늘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물론 제 곁에는 아내와 아이들, 좋은 선후배와 친구들이 있지만 어머니란 존재는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다는 걸 느낍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어머니와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주고받으며 영혼의 동반자처럼 지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갑작스레 돌아가셨을 때, 저는 제 안의 모든 울음을 토해내며 힘들어했습니다. 당시에 전 고등학생이었고 죽음을 이해하기에도 또 어머니의 부재를 받아들이기에도 어려웠습니다.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다. 울어도 울어도 해결되지 않는 상실감과 슬픔이었지만 우는 것밖에 달리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사람이 하도 울면 감정의 기억이 몸에 새겨지는 모양입니다. 슬픔을 연기할 때면 제 몸은 그때를 기억해서 인물과 장면에 젖어 듭니다. 슬

픔에 싸인 남자의 표정이 어떤지, 목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는지, 온몸은 어떻게 떨리는지 굳이 생각하고 계산하지 않아도 제 몸은 자연스럽게 표현해 냅니다. 어떻게 보면 재연해 낸다고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당시에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그날의 질문이 지금은 ‘아마도...’라는 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나의 슬픔은 연기가 되고 나의 연기는 누군가의 공감에 되는 게 아닐까? 나의 슬픔이 연기를 통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더 나아가 희망이 된다면, 그렇게 쓰일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광대승천 제네시오’에서 배우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 미사를 드리면서 저희는 요즘 하느님 계획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오 성인은 무대 위에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불타올랐다고 합니다. 저 역시 제네시오 성인처럼 무대에 오를 때마다 또 카메라 앞에 설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며 제 연기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투영되기를 빕니다. 아멘.

글구성 서희정 마리아작가

한컷 묵상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루카 11,9)

강신성 요한 세례자 | 작가

돌 위를 걷다 보니 길이 되었다



최남식 베드로 신부 | 살레시오회(살레시오청소년센터)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9일까지 30일간, 지리산을 시작으로 덕유산, 속리산, 소백산, 태백산을 지나 함백산에 이르기까지 440km의 백두대간을 청소년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백두대간으로 간다.”고 했더니, 많은 아이들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호기심을 보이며 신청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처음 관악산을 오를 때 “이 정도 산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겠는데요.”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저는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라며 포기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산행인, 청계산에서 바라산을 지나 광교산까지 1박 2일 여정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은 점점 더해져 백두대간 출발 전 마지막 준비 산행이었던 불수사도봉(불암산, 수락산, 사패산, 도봉산, 북한산)의 2박 3일 여정을 앞두고서는 우리 모두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백두대간 출발 시간이 되었을 때, 아이들의 얼굴에 드리운 두려움 뒤에는 은근한 기대감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지리산 백무동에 모인 우리에게 이제, 오직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시작된 산행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지쳐가고, 길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쯤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돌 위를 걷다 보니 길이 되었네요.” 땅만 보고 걸으며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까 돌 위를 조심스럽게 내딛다 보니, 어느새 뒤를 돌아보았을 때 길이 되어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길을 걷다

보니 두통이 와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엄마 생각이 났어요. 엄마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왜 그렇게 힘들고 아파했는지 이해할 것 같아요.”라며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나눔을 들려 주었습니다.

30일이 지나 함백산을 오를 즈음, 아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가족들이 점심을 챙겨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춘기라고 가족과 대화를 꺼리던 무뚝뚝한 아이들이 어머니의 가방을 들어주고,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겠습니까! 백두대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아이들과 소감을 나누던 자리에서, 한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가 산을 걸으며 겸손함을 배웠다고 했는데,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시련들이 저를 더 단단하게 하고 겸손함을 배우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하느님께서 자녀들의 성장을 통해 부모도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에서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루카 11.13)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자녀를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청할 때, 하느님께서 자녀들을 통해 우리 가정에 더 큰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백두대간 여정을 걸으며 비로소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 있게 열등하기

‘심리사회적 8단계 발달 모델’의 넷째 단계(6~11세)의 과업으로 에릭슨은 ‘근면성 대 열등감’을 제시합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이 무언가를 만들고 시도할 수 있도록 격려받으면, 과제를 완수할 때까지 꾸준히 노력합니다. 일시적인 재미보다 일을 우선시하는 근면성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자신감도 생겨나죠. 그런데 만일 노력에 대해 비웃음을 사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받으면, 자신에 대한 부적절한 느낌이나 자기 능력에 대한 열등감이 발달합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열등감’을 ‘자기를 남보다 못하거나 무가치한 인간으로 낮추어 평가하는 감정’이라고 정의합니다. ‘나라는 사람에 대한 가치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열등감’이 아닌 ‘열등’이라는 단어는 ‘보통의 수준이나 등급보다 낮음. 또는 그런 등급’이라고 설명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열등’한 것은 살면서 누구나 경험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키가 크더라도, 나보다 더 큰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리더라도, 나보다 더 빠르게 달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큰, 가장 빨리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밖의 다른 모든 사람들은 키가 작거나 빨리 달리지 못해 ‘열등’하다고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는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들러라는 심리학자는, 모든 인간은 현재보다 더 나은 상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이며 동시에 사회적 존재로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신을 평가하기 때문에, 누구나 열등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열등감을

보상하려는 노력이 인간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까지 말하죠.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능력’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나 다 능력을 쌓으려 하고, 증명하려 하고, 그래서 인정받기를 바라지요. 이러한 분위기는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줍니다. 하느님을 마치 어린 시절의 부모님이나 선생님처럼 여겨, 내가 잘하면 더 사랑하시고 내가 못 하면 덜 사랑하실 것으로 잘못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느님 사랑에 감사해서이기보다, 하느님의 사랑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미사에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기도 합니다.

나의 일부가 다른 사람보다 열등하다고 해서 나라의 존재의 가치가 누군가보다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내가 가진 능력이나 소유한 물건이 얼마만큼인지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시고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꾸준함(근면성)과 자신감은 ‘열등감’이 없어야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자신 있게 받아들일 때,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때 생겨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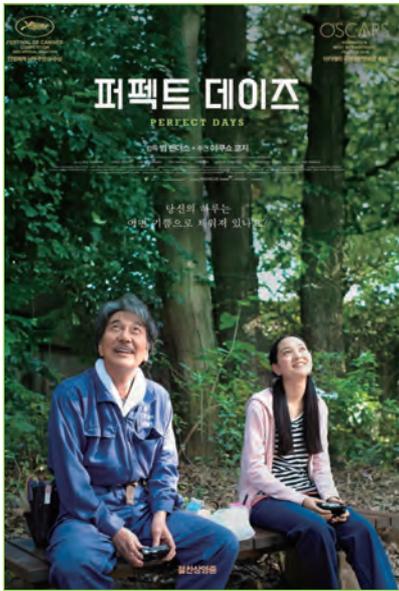
어떻게 해야 그럴 수 있을까요? 답은, 나를 바라보시는 하느님께 있습니다.

“내가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들을 자랑합니다.”(2코린 11,30)



민범식 안토니오 신부 | 대신학교장

상단 큐알(QR)코드를 통해 지난 연재글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퍼펙트 데이즈〉(Perfect Days)
2024년작, 빔 벤더스 감독

희망영화관

: 완벽한 날들 (Perfect Days)

희년을 맞아 서울주보는 희망을 주제로 다양한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희망 영화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희망의 가치를 다양한 측면에서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희망의 다양한 속성을 제시하고, 서사 안에 이를 잘 담아낸 영화를 소개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희망을 보여주는 영화와 함께 희년을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김상웅 도미니코 신부 | 예수회, 서강대학교 교수

그날, 저는 화진포 호가 아름답게 펼쳐진 고성 습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다다랐을 때, 생명체를 만나러 가는 오래간만의 설렘이 올라왔습니다. 생명은 유희의 대상으로서의 관람이나 구경이 아니라, 신학자 스킨레벡스가 표현했듯이, 어떤 ‘궁극적인 만남’과도 같습니다. 고귀한 생명 현상을 보유한 그 생명체가 세상에 현현했을 때 우리 존재가 그 생명과 만나는 유일한 태도는 겸손과 존중이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각시수련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은 생명체 안에 깃든 하느님의 섭리를 어떤 완벽한 아름다움으로 경험하게 해 주었는데, 그 모습이 화려하거나 찬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꽃이 있다.’라는 단순한 진실이 그 어떤 아름다움을 추월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지 안에 깃든 하느님의 지극히 겸손하고 고결한 총체적 조절의 기운이 이 수련을 무에서 유로 수려하게 각조했을 시간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내 눈 앞에 펼쳐진, 하느님께서 관할하시는 총체적 이 대지의 거룩한 운용의 법칙이 나에게 발견됨으로써 궁극적인 만남이 가능해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느님의 존재가 화진포 호숫가에서 바람처럼, 불고 싶은 대로 불어왔고, 순간 아름다운 흰색의 자그마한 수련 잎새가 가녀리게 흔들렸습니다. 그러자 청록의 연잎에 드리운 그 수련 꽃잎의 흔들림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수련의 그림자가 연잎 위에서 가만히 떨렸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 떨림의 흔적들을 목격했고 모든 생명은 이렇듯

이 세상에서 고유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기에 고유한 그들의 모습이 지상에 불완전한 채로 반영되어 그들의 흔적을 남기고 가뭏없이 사라지는 것이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자신만의 고유한 떨림을 남깁니다. 우리는 모두 빛이신 하느님의 지상의 반영이라는 생각이 든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빔 벤더스 감독의 작품 〈퍼펙트 데이즈〉는 시부야의 청소부 히라야마라는 주인공이 경험하는 ‘궁극적 만남’의 과정을 세밀화처럼 아름답게 그려낸 수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히라야마는 그 일상이 수물시킨 소중한 만남의 감각들을 떨리는 잎새들의 빛의 반영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일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미려하게 드러나는 겸손한 사태들을 태양 빛에 떨리는 나뭇잎들의 빛의 반영을 통해 목도하며 주인공 히라야마는 경이의 한복판으로 다가가 드디어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아버지의 나라’는 영토나 소유권 전유를 뜻하는 소버린(sov^{er}ign)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거룩한 질서감을 향한 다스림(govern^{ing})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다스림은 통치의 형태로 드러나기보다 각시수련의 겸손하고 소박한 모습에서 완벽한 날들을 꿈꿀 수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지만 끊임없이 당신의 경이에 참여하라고 격려하시는 가운데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당신과의 ‘궁극적 만남’에 이르리라고 약속하시는 희망의 다스림입니다.

이 시대의 희망사

영원까지 계속될 정의: 김홍섭 바오로



서희정 마리아 | 작가

저 멀리 또 그가 보인다. 땀방울이 내리쬐는 여름이나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에도 그는 끊임없이 이곳, 교도소에 찾아온다. 그가 처음 교도소에 나타났을 때, 그 누구도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 '서울고등법원 판사'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비루한 차림새였기 때문이다. 여름에는 낡고 헤진 흰색 반팔 상의에 검은 바지, 겨울에는 누군가에게 얻어 입은 것이 분명한 커다랗고 얇은 재킷에 검은 바지. 신발은 사계절 내내 검은 고무신이었다. 그러니 그가 신분증을 내보이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한 것인데, 이제는 하도 감옥을 들락날락하여 멀리서도 그를 알아보게 되었다. 판사가 교도소에 이리 뻘질나게 드나드는 것은 사형수와의 면담 때문이었다.



사진 출처 | 가톨릭평화신문 제공

판사였기에 누군가의 죄를 판단해야 하는 그였지만 그는 늘 오판의 죄를 짓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더불어 죄의 판단 기준을 두고 회의감에 들었다. 특히 가난으로 저지른 죄와 어른들의 방치로 죄에 몰린 아이들의 죄에 대해서는 묻고 또 묻지 않을 수 없었다. 판사이자 그리스도인이었던 그는 모두를 용서하고 품어야 하는 '신앙'과 죄를 판결하고 벌을 줘야 하는 '법' 사이에서 번민했다. 그랬기에 그는 더욱 열심히 기도했다. 부디 하느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식별하게 해 달라고... 그러던 어느 날, 하느님의 대답이 돌아왔다. 사형수 허태영을 통해서였다. 허태영은 대통령과의 친분을 등에 업고 권력을 휘두르던 육군 특무부대장을 암살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김홍섭은 그에게 살인죄를 인정하여 사형을 선고했다. 한 인간을 죄로 판단하고 선고하는 것이 법의 끝이 아니라 믿은 김홍섭은 감옥으로 허태영을 찾아갔다. 법의 판단 그 이후가 있음을 그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이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 "먼지는 제가 생겨난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를 주신 천주께로 돌아간다."는 진리를 전하고자 하였다. 그런 그의 진심이 통했는지 허태영은 김홍섭의 대자가 되어 '마테오'라는 이름으로 감옥에서 세례를 받았다. 사형 집행이 있던 날, 집행관은 허태영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없는지 물었다. 허태영은 대답했다. "대부님께 제가 편안하게 죽음으로 간다고 전해 주십시오." 이 소식을 들은 김홍섭은 이렇게 회고했다. "이제 사람은 갔다. 갔

지마는, 그와 나 사이의 정의는 남는다. 일후 영원까지 계속될 정의가... 망자 평안함에 쉬어지이다. 아멘."

신앙과 법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지 길을 찾은 김홍섭은 그날부터 이렇게 사형수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던 것이다. 오늘도 김홍섭은 사형수와 마주 앉았다. 이 세상 정의를 판결하는 판사로서가 아닌 영원까지 계속될 정의를 전하는 사도로서.

덧) 김홍섭 바오로 판사는 이후에도 수많은 죄수 특히, 사형수를 만나며 하느님을 전했고 그들의 대부(代父)가 되어 주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는 '사형수의 아버지' '사도 법관'이라 불리고 있다.

오늘(7월 27일)은 연중 제17주일(조부모와 노인의 날)입니다

‘조부모와 노인의 날’ 담화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www.cc.catholic.or.kr)-교회 메시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88년 7월 29일 임하길 안드레아 신부(77세)
- 1990년 7월 30일 오기선 요셉 신부(83세)
- 2019년 7월 29일 한정관 바오로 신부(76세)

교구청 알림

2027 서울 WYD 전례음악 담당 합창단 및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합창단: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오케스트라: 관악기, 타악기, 현악기, 국악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wydseoul.org) 공지 사항 참조 / 문의: 02)2230-2027

주교좌 명동대성당 하반기 견진성사

신청대상: 세례성사와 첫영성체를 받은 20세 이상 신자
신청기간: 8월 10일(주일)~31일(주일) 구비서류
지참 후 내방 접수(자세한 일정과 준비서류는 명동성당 홈페이지-성당소식 참고)
교육일정: 9월 7일~10월 20일 매주(주일) 오후 1시30분~3시30분(6주간 / 10월 5일 휴강, 코스트홀(대면수업)
견진성사: 10월 26일(주일) 오후 2시, 명동대성당 대성전 / 문의: 02)774-1784 (내선8) 성당사무실

사목국 '성서못자리' 2025년 하반기 강좌 안내

접수기간: 7월 29일(화)~8월 24일(주일) / 선착순 인터넷 접수
접수: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 '성서못자리 신청' 통해 사전접수 / 문의: 02)727-2379
1) 명동 오전 정기강좌(정기강좌 및 나눔터학교)
때, 곳: 9월 1일~12월 8일 매주(월) 10시30분~12시30분, 명동 교구청 내 강의실(15주 강의)
개강미사: 9월 1일 11시30분, 명동대성당 회비(교재 지급): 정기강좌 8만원, 나눔터 7만원
강사 신부 및 강의실 홈페이지 참조
2) 청년(1권), 직장인(2권) 성서못자리
때: 9월 3일~12월 10일 매주(수) 19시30분~21시(15주 강의)
개강미사: 9월 1일 19시30분, 명동 소성당 회비(교재지급): 청년 5만원, 직장인 8만원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하계 휴관: 7월 29일(화)~8월 6일(수)

서울대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되신 분은 8월 11일(월)까지 교구 법원으로 연락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 성명: 이유진 레이첼
문의: 02)727-2130, 2131(주말, 공휴일 휴무)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없음)
때, 곳: 8월 7일(목) 오후 2시~3시, 문화관 2층 소성당(코스트홀) / 문의: 02)727-2407, 2409
집전: 김동원 국장 신부, 유동철 차장 신부(해외선교봉사국)

2026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신입생 모집

사제지망 일반예신 학생 및 체계적인 신학 공부를 희망하는 수도자, 남녀 평신도를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고교졸업(예정)자, 대학수료자, 수도자, 만학도(만 30세 이상) / 문의: 02)740-9704, 9705
원서접수: 9월 8일(월)~12일(금) 인터넷 접수
면접평가: 10월 31일(금)
홈페이지: https://songsin.catholic.ac.kr

민족화해위원회

1) 북한민들 대상으로 하는 대화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대상: 북한민 10명(선착순 접수)
때: 9월 6일~11월 29일 격주(토) 10시~15시
곳: 민족화해위원회 회의실(명동) / 중식 제공
문의(신청): 02)727-2413
2) 1474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때, 곳: 7월 29일(화) 19시, 명동대성당
금주의 '내 마음의 복녘분당': 춘천교구(북녘지역) 이천 분당 / 문의: 02)727-2420

가톨릭 임상사목교육(CPE) 교육생 모집

위기나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가족, 교육, 이웃)을 돌보기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영적돌봄 방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 문의: 02)727-2434
교육프로그램: 정규반(16주), 단기반(8주)
서울센터: 가톨릭회관 임상사목교육센터
수원센터: 성빈센트병원 임상사목교육센터

제102차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

주제: 중독으로 인한 빈곤문제
때, 곳: 7월 31일(목) 19시, 명동대성당
지향: 중독으로 세상을 떠난 중독자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 문의: 02)364-1811, 031)810-9000
주최: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 주관: 단중독사목위원회, (재)한국중독연구재단(KARF)

2025 시편과 성무일도 8월 특강

대상: 누구나(회비 없음, 성경 지참) / 강: 조창수 신부
때, 곳: 8월 1일(금) 13시~17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명동) / 내용: 성경 시편과 성무일도 시편
2026 산티아고 도보순례 피정: 9월 1일~10월 10일 (예정 / 피정 지도: 조창수 신부)
문의(신청): 010-8889-5425(문자) k가톨릭 성경영성 아카데미

해설이 있는 천주교 서울순례길 도보순례 접수 안내

신청: 7월 28일(월)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검색창: 순교자현양위원회) / 회비: 회당 1인 7천원
전화 및 문자 접수 받지 않습니다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 일시 | 코스 |
|-----------|---|
| 8월 27일(수) | 저녁애 순례길(701코스) 서소문 역사공원 → 중림동 약현성당 → 서울로 7017 → 명동대성당 / 오후 7시부터 시작 |

특별 헌금 모금 현황(2025년 상반기)

2025년 7월 11일 현재
(단위: 원)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교구청)

| 모금 일자 | 특별 헌금 | 참여 본당 | 금액 (원) | 지급처 |
|----------|-----------------|-------|----------------------|---------------------------------|
| 1월 26일 | 해외 원조 주일 2차 헌금 | 223 | 562,405,068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 4월 6일 | 경북, 경남 산불 피해 구호 | 224 | 828,572,517 | 안동교구 |
| 4월 13일 | 사순 시기 이웃 돕기 | 225 | 647,430,529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
| 4월 18일 | 예루살렘 성지 복구 | 226 | 405,360,411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 4월 20일 | 미얀마 지진 긴급 구호 | 225 | 782,898,420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통해 지원 |
| 5월 11일 | 성소 주일 2차 헌금 | 220 | 558,487,623 | 교황청 전교기구 |
| 5월 25일 | 청소년 주일 2차 헌금 | 223 | 527,671,841 | 청소년국 |
| 6월 1일 | 홍보 주일 2차 헌금 | 222 | 509,936,040 | 가톨릭평화방송, 평화신문 |
| 계 | | | 4,822,762,449 | 본당 219, 준본당 9, 선교본당 5 / 총 237 곳 |

※ 6월 22일 북한 형제 돕기 및 29일 교황 주일 특별 헌금은 결산이 끝나지 않아, 하반기 모금 현황과 함께 공지할 예정입니다.

인준단체 알림

모임

작은예수수녀회 매일 철야기도 지향

대상: 중재기도(특별기도) 필요하신 분
 때: 8월 1일~31일 / 문의: 010-8867-3217

ICPE SONE 새로운 복음화 학교 피정

때, 곳: 8월 14일~17일, 마리스타 교육관(합정)
 문의(접수): 010-5718-6894 / 카카오톡 플친: ICPE

멕시코 해외 성지순례 모집 / 문의: 010-5735-4578

10박11일 성모발현지 과달루페+칸쿤
 출발: 11월 25일 / 주좌: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8월 '잠시멈춤' 청년 기도모임(착한목자수녀회)

대상: 남녀 청년 15명 / 문의: 010-7197-1390
 때, 곳: 8월 28일(목) 19시30분, 영성센터(명동) B401호

11강남지구 성령기도회 / 문의: 010-9519-1608

때: 매주(금) 19시~21시50분 / 성령미사·강의·안수
 곳: 역삼동성당 경환당(주차 가능) / 배광하 신부

가경자 최양업 신부 시복기원 성지순례

때: 8월 9일(토)·14일(목) / 회비: 5만원
 곳: 수리산·손골·한덕골 성지 / 선착순 40명씩
 문의(접수): 010-8950-5809 이로서 수녀(병형강학회)

녹번동성당 성령기도회 치유 무료 피정

강사: 김현우 신부(인천교구 해양사목) / 010-2452-3359
 때, 곳: 8월 6일(수) 18시30분~20시30분, 녹번동성당
 2층 소성전 / 내용: 말씀, 치유기도, 찬양, 미사, 안수

성 이나시오 영신수련 피정

피정 동반자: 김연수 신부(예수회)
 때: 9월 25일(목) 17시~28일(주일) 16시
 곳: 제주 성 이시돌 피정의 집 / 회비: 30만원
 문의(접수): 064)739-0951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토아올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 | | | |
|--------|--------|-------|--------|
| 7월 29일 | 김종국 신부 | 8월 5일 | 신교선 신부 |
|--------|--------|-------|--------|

피아골 피정·성지순례 / 문의: 010-3712-8119

| | |
|--------|-----------------------------|
| 피아골 피정 | 9월 19일~20일, 11월 21일~22일 |
| 홍성남 신부 | 아키타 9월 8일~12일, 큐슈 12월 1일~4일 |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곳: 도미니코 피정의 집(주최, 황성) / 010-3340-0201

| | |
|------------------|------------------------------------|
| 효소 단식 | 8월 4일(월)~7일(목), 8월 28일(목)~31일(주일) |
| 성경 완독 | 8월 15일(금)~23일(토), 9월 19일(금)~27일(토) |
| 카타리나의 집(개인·자체취사) | 문의: 010-9715-1203 |

예수회센터 하루 피정

소정의 수강료가 있으며 단체 환영합니다
 각 날짜별로 접수 받습니다 / <http://center.jesuit.kr>

| | | |
|-------|--|-------------------------|
| 수요 피정 | 9월 24일, 10월 29일, 11월 26일, 12월 31일 19시~21시(20시30분 미사) | 문의(접수): 02)3276-7733 |
| 토요 피정 | 9월 13일, 10월 11일, 11월 15일, 12월 20일 10시~15시30분(15시 미사) | |

혼인성소 찾기 피정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oh oh my half' / 최영민 신부(예수회)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내용: 고해성사, 미사, 묵주기도, 성체조배
 때, 곳: 8월 2일(토) 15시~18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십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5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우도섬 포함 여름 피정** 8월 11일~13일·8월 15일~18일·8월 21일~23일, **자연순례** 9월 1일~3일·9월 13일~15일·9월 23일~25일·10월 2일~4일, 10월 11일~13일·10월 16일~18일, **추자도포함 성지순례** 9월 7일~10일·9월 18일~21일·10월 25일~28일
 문의: 064)796-4182, 02)773-1455 제주 자연 피정

성지순례·성베네딕도왜관수도원 문화영성센터 탐방

문의: 010-3807-1784 라 이시돌

| | |
|-------------|--|
| 9월 20일~23일 | 제주도, 추자도, 차귀도(야의 미사) |
| 10월 18일~22일 | 울릉도, 독도-수도원 |
| 11월 15일~25일 | 대회년 바티칸 4대문 통과-이탈리아 회비: 495만원(대한항공) |

성 이나시오 영신수련 피정(예수회 말씀의집)

문의: 031)254-8950

| | |
|-----|---|
| 30일 | 10월 10일(금)~11월 10일(월) |
| 8일 | 9월 22일(월)~10월 1일(수), 11월 16일(주일)~25일(화), 12월 10일(수)~19일(금) |
| 단기 | 2박3일 9월 12일(금)~14일(주일), 1일 9월 21일(주일), 3박4일 12월 1일(월)~4일(목) |

가정선교회 8월 피정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때, 곳: 12시30분~16시50분,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 |
|-------------------|---|
| 토요 피정과 성모신심 첫토 미사 | 8월 2일(토) / 김경진 신부 |
| 성가정 영성 피정 | 8월 6일(수) / 윤민재 신부, 이현주 회장 |
| 치유·회복을 위한 찬양 피정 | 8월 16일(토) / 김경진 신부 찬양: 고영민 부회장, 손현희 팀장 |

예수교난회 서울 명상의 집 피정 / 문의: 02)990-1004

| | |
|-------------------------|----------------------------|
| 개방의 날 | 매월 첫번째(금) 8월 1일 10시~15시30분 |
| 다네이영성수련(대침묵) | 8월 5일~7일(2박3일) |
| 회복탄력성 강화 피정 | 8월 8일~10일(2박3일) |
| 메추리구리에 단식 피정 | 8월 20일~24일(4박5일) |
| 단체 피정(자체·위탁) / 개인 피정 가능 | |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기도회

곳: 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버스 환승 500-504-6512-5535 천주교성령봉사회관 하차 / 02)867-7900

| | | |
|-----------|-------------------|------------|
| 주일기도회 | (주일) 13시20분~17시 | 미사: 16시 |
| 월요일기도회 | (월) 18시30분~22시 | 미사: 21시 |
| 치유기도회 | (수) 13시~17시 | 미사: 16시 |
| 로사리오기도회 | (목) 13시~17시 | 미사: 16시 |
| 철야기도회 | (금) 18시~22시 | 미사: 21시 |
| 생명축복기도회 | (토) 14시30분~19시30분 | 미사: 18시 |
| 청년(투해)기도회 | (금) 19시30분~21시30분 | 미사: 20시30분 |

다시, 만남의 잔치(목3동성당)

홍인식 신부의 은퇴에 즈음하여 청년 성서모임의 뜨거운 미사 '다시, 만남의 잔치'를 드리려 합니다 / 문의: 010-5229-9425(문자)
 때, 곳: 9월 14일 15시, 명동성당 영성센터 대강당
 접수: <https://naver.me/559SM7m>

한마음 사계 피정(8월·9월·대침묵 피정)

주제: 하느님의 열 가지 말씀들, 하느님의 시선 안에서 / 강사: 이승엽 신부, 이종경 신부
 때, 곳: 8월 22일(금) 16시~24일(주일) 13시·9월 19일(금) 16시~21일(주일) 13시,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동 / 회비: 1인 20만원(1인 1실)
 문의: 031)850-1449 의정부교구 선교사목국

인천교구 지혜의 샘 프로그램

곳: 인천교구 지혜의샘(부천시 경인로 61-1, 중동역 5분 거리)
 유튜브: 지혜의샘 북방 검색 / 문의: 010-3248-9705
1) 전인적 치유 피정: 7월 30일(수) 10시~17시
 강사: 한연홍 신부, 한영임 회장 / 점심 무료제공
2) 성경통독·길잡이 맥도형틀(마인드맵)
 내용: 도형틀을 통해 성경의 내용을 외우며 통독함
 회비: 교재 2만원, 등록 1만원
 때: 9월 1일부터 매주(월)~창세기, 매주(수)~마르코 진행 중 / 오전반 10시~12시·오후반 18시~20시

교육

수제 묵주 교육(가톨릭묵공예)

접수: cafe.naver.com/rosary10 / 문의: 010-5234-5044

음악심리 상담사 자격 초급반

때, 곳: 8월 20일~9월 3일 매주(수) 13시30분~16시30분,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정역) / 회비: 15만원
 문의: 010-4252-1165 가톨릭성음악클레식기타회

물이솟는샘 '예닮영성' 교육

11.우리 하느님: 9월 1일(월) 10시30분, 교구청 501호
 홍성만 신부 / 주1회·1시간30분 교육(총12회)
 문의(접수): 02)472-3217 가톨릭영성아카데미

서울대교구 전례꽃꽂이 연구회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때: 9월 4일 가을학기 개강부터 매주(목) 15주
 곳: 가톨릭회관 2층 205-3호 / 지도: 전호엽 신부
 문의: 010-5236-5493, 010-5224-1108

예수회 수도생활 체험학교-나이 들, 새로운 소명

지나온 삶을 성찰, 노년을 의미 있고 충만히 하는 프로그램 / 문의: 010-7451-9707
 대상: 60세 이상 / 회비: 100만원
 때, 곳: 9월 15일~24일·10월 13일~22일·11월 17일~26일·12월 8일~17일(10일), 강원도 홍천

'자아의 통합과 영성' 가을학기(전진상영성센터)

개인의 심리적 성숙과 영성의 통합을 돕는 심리 영성 통합강의(대면 강의·비대면 강의)
 강의 후 소집단 경험훈련(이론강의만 수강도 가능)
 때: 9월 4일~12월 11일 매주(목) 10시~13시(총14주)
 곳: 명동 / 문의: 02)726-0700(www.jiscen.or.kr)

성 이나시오 학교 아학 학생 모집

1년 동안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함께 공부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 선착순 접수, 수업료 무료
 대상: 중졸, 고졸 검정고시 응시 희망자(성별·연령 무관)
 때, 곳: (월~금) 19시~21시40분, 서강대학교 / 문의: (02) 717-8248 교무실, 010-8366-4609 이지영 학생과장
 교무실: 서강대학교 곤자가플라자(마포구 백범로 35)

마리아학교 9월 학기 수강자 모집

내용: 성모님에 관한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배움
 문의(접수): 010-2724-4819 서울 마리아 학교

| | |
|-----------|---|
| 대면반 | 9월 2일~2026년 2월 28일 매주(화) 14시~16시 가톨릭회관 205호 / 핸드폰으로 신청 |
| 온라인 Zoom반 | 9월 4일~2월 28일 매주(목) 20시~22시 |

모집

예수성심 전교수도회 재속(친교회) 회원 모집

대상: 만 65세 이하 교우 / 문의: 010-8735-4889

시스띠나 시니어합창단원 모집(혼성)

지휘: 이호중 교수 / 남성단원 환영
 곳: 시스띠나 음악원(신촌) / 문의: 010-9842-8818

서초동성당 헬름 체임버 모집 / 문의: 010-7743-2302

대상: 테너 전공자 및 남성합창 / 11월 레퀴엠 공연 예정
 오디션(8월 마감) / 미사: 첫째·셋째주(주일) 21시

청년 자원봉사자 모집(성빈센트청소년회)

내용: 청소년들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지도교사
 대상: 청소년들에게 관심있는 대학생, 청년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www.stvin.or.kr
 문의: 02)926-3440, 010-6880-9605

미사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때: 8월 1일(금) 14시~16시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문의: 02)929-2977

새천년복음화학교 후원회 월례 미사

미사: 조성풍 담당 신부 / 문의: 02)753-8765
 때, 곳: 8월 21일(목) 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곶벚나무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성모신심미사

때: 8월 2일(토) 10시 / 내용: 성모마리아 신심 미사
 곳: 프란치스코 수도원(한남동) / 문의: 02)793-2070

오기선 신부 기일 미사·월례 미사(오기선요셉장학회)

| | |
|---|----------------------------|
| 오기선 요셉 신부 35주기 추모 미사 | |
| 7월 30일(수) 11시40분, 용인천주교묘지 김수환추기경 기념경당(031-334-0807) / 무료대절버스·중식 접수: 010-8982-9819 명동대성당 출발, 010-8936-2331 절두산 출발·010-5202-5145 대방동 9시40분 출발 | |
| 월례 미사 | 7월 31일(목) 15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절두산순교성지 로사리오회 예수성심 신심미사

내용: 연령과 가정을 위한 기도과 미사 / (02)3142-4434
 때, 곳: 8월 1일(금) 11시10분, 절두산순교성지

7월 영화 치유 미사

내용: 단편영화 상영 프로그램, 미사(접수) / 회비 없음
 때, 곳: 7월 30일(수) 오전 10시30분, 가톨릭회관 205-2호 /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첫토요일 신심미사(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내용: 성모님의 요청대로 미사
 때, 곳: 8월 2일(토) 9시30분~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 문의: 02)756-3473, 010-2565-3473

웅기장학회 월례 미사

때, 곳: 7월 28일(월) 11시, 명동대성당 파밀리아 채플
 주제: 소현준 신부, 박신언 몬시뇰 공동집전
 강령: 정영진 신부 / 문의: 02)727-2525 사무국
 우리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빌며, 우리보다 앞서 가신 하느님의 종 김수환 추기경님과 우리 각자 조상들의 영혼을 위해 봉헌합니다

안내

봄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가족, 단기부부상담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 (전화상담 가능)

정신분석심리상담센터 IPC

대상: 심리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으로 전문적인 심리상담치료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곳: 강남 / 문의: 010-9139-1937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일원동성당 혼인미사 / 문의: 02)2226-2291

아름다운 성전과 카페, 리모델링을 통한 쾌적한 웨딩홀, 전철 3호선 대청역 2분 거리, 300대 주차
 때: (토) 12시 / 홈페이지: www.mylwon.com

착한의견의 성모피정집 / 문의: 031)834-1262

소규모 단체 자제, 위탁, 개인피정
 수도원 일과에 자유롭게 참여
 곳: 연천 착한의견의 성모수도원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블자비의수녀회)

가톨릭대학교 '제12회 이원길 인본주의상' 공모

가톨릭 인본주의를 삶으로 실천하며 사회에 기여한 개인·단체 공모 / 상패 및 상금 5천만원 수여
 홈페이지: bwl.catholic.ac.kr
 문의: 02)2164-4646 가톨릭대학교 학부대학운영팀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입원 및 외래 통일 치료(도박·인터넷 게임) / 홈페이지: www.karf.co.kr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 / 문의(진료·입원): (031)810-9200
 곳: 고양시 전철 3호선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가톨릭뇌은행 뇌기증 희망자 모집

치매와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뇌질환의 극복을 위해 사후 뇌기증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 성인 누구나(만 19세 이상) / 문의: 02)2258-7660
 관련기관: 과기부 산하 한국뇌은행
 기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뇌은행

진애인 심리상담센터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ein.com) 토요상담 가능

| | |
|---------|---|
| 전문 심리상담 |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부부, 가족간의 갈등, 대인기피 등 마음투자 정부지원금 신청 해당기관 |
|---------|---|

직원모집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직원 모집

홈페이지(https://songsin.catholic.ac.kr)-성신광장-모집공고 참조 / 문의: 02)740-9707, 8

신대방동성당 사제관 주방근무자 모집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교우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 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채용시까지 우편(우 07061,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 11길 14 신대방동성당 사무실) 접수
 서류 전형 후 개별 면접 / 문의: 02)825-2314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제관(성북구) 주방근무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 분야: 주방근무자 1명(계약직)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 서 다운로드-지원 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사무실에 신청) / 이메일 문의
 8월 10일(주일)까지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74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가톨릭출판사 직원 모집

서류: 입사지원서(본사양식) / 문의: 02)6365-1829
 자세한 내용은 본사 홈페이지-회사소개-채용정보 메뉴를 반드시 참조 / 홈페이지를 통한 지원서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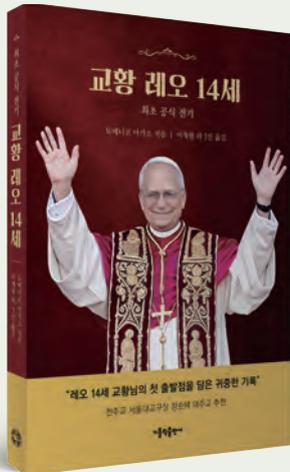
| 모집 분야 | 담당 업무 |
|--------|------------|
| 영업국 | 영업 |
| CRM사업국 | 매장 판매 및 관리 |
| 편집국 | 전문 편집 |

| 수도회 성소모임 | 때 | 곳 | 문의 |
|-----------------|----------------|-------------------------|----------------------------|
| 곶벚나무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 매일 첫째주(주일) 14시 | 성 보나벤투라 수도원(해화동) | 010-4344-1997 권정대 수사 신부 |
| 도미니코 수도회 | 수시 | 수도원(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 010-2034-0042 이호준 신부 |
|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 개별적 협의 | 수녀원(미아동) | 010-5604-1882 |
| 천주교서울교구제선교회 | 수시 | 선교회 | 02)749-4596, 010-2749-4596 |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

최초 공식 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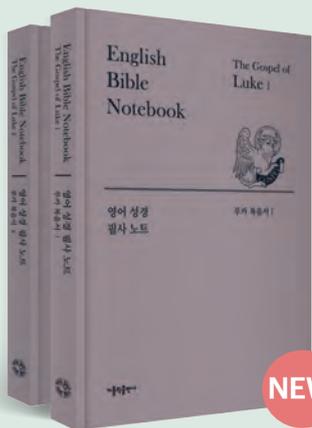


온 세상이 기다려온 새 교황님에 관한 최초의 전기

새 교황님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이른 지금, 《교황 레오 14세》는 그분의 생애와 신앙적 배경을 국내 최초로 소개하는 전기이다. 어린 시절부터 성직자로서의 사목 여정, 교황 선출과 초기 행보까지 폭넓게 다룬 이 책은 새 교황님의 시대를 이해하고 앞으로 그분께서 이끌어갈 교회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신앙적 지침서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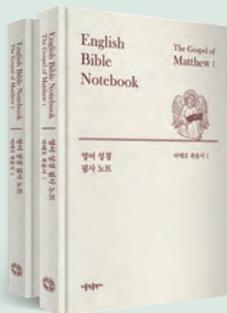
도메니코 아가소 지음 | 이재협 외 3인 옮김 | 2만원

영어 공부와 말씀 묵상을 함께 영어 성경 필사 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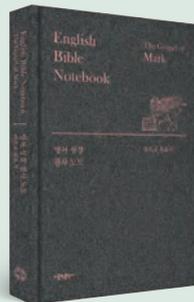


말씀 안에
머무는
은총의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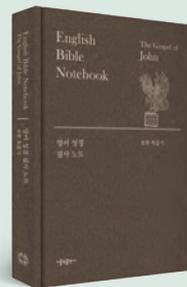
루카 복음서
3만2천원



마태오 복음서
3만원



마르코 복음서
1만8천원



요한 복음서
2만원

수능 100일, 함께 기도해요! 수능 100일 기도 노트



수험생 부모님들을 초대합니다

수능을 100일 앞둔 지금,
긴 여정을 걸어온 수험생들을 위해
매일 기도와 묵상으로 함께하는 노트

수능 100일 기도 노트

가톨릭출판사 편집부 지음 | 1만4천원



수험생을 위한 온라인 기도 모임

가톨릭북플러스 그룹 바로가기 >



가톨릭출판사

가톨릭의 모든 도서와 성물, 디지털 콘텐츠를
'가톨릭북플러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www.CatholicBookPlus.kr

구입문의
02) 6365-18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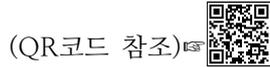
● **무지카사크라 소년합창단 작은 연주회**

「주님과 음악 사이에」

·일 시 : 매월 첫째 · 셋째 주일 / 오후 3시 30분

·장 소 : 명동대성당 대성전

※단원모집 : 초2~5학년 가톨릭 신자 남아 / 010-7242-6027



(QR코드 참조)

● **명동청년성서모임 7월 봉사자 모집**

·모집기간 : 7/14(월)~7/31(목)

·모집대상 : 20~33세(06년~93년생) 창세기 연수 이상을 수료한 청년 가톨릭 신자

·접수방법 : 네이버 카페(/ourbible)를 통한 온라인 접수

·상세공고 : 성당 마당 게시판 포스터 참조

·문의메일 : mdsd_bible@naver.com

● **명동대성당 혼인미사 성가단 단원 모집**

· 모집파트 : 테너 ○명

· 지원자격 :

① 세례를 받은 천주교 신자 (혹은 예비신자)

② 다음 혼인미사 일정에 맞춰 성가단 활동 가능한 자

* 혼인미사 일정

- 금요일 13시, 17시 미사

- 토요일 11시, 12시, 14시, 15시, 16시 미사

- 주 일 11시, 14시, 16시 미사

③ 만 29세 미만, 음악대학 성악 전공 4학기 이상 수강한 재학생 및 졸업생 (휴학생 가능)

· 구비서류 : ① 자기소개서, 교적증명서,

② 음악대학 졸업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 마감 : 7/31(목)까지, 구비서류 본당사무실 제출

※상세 문의는 본당 홈페이지 <단체모집 게시판> 참조

● **명동대성당 3545+ 청년성가대 '카이로스' 단원 모집**

·모집대상 : 1982년생~1992년생 남녀 가톨릭 신자

·연 습 : 토요일 오후 4시 30분~6시 30분

·활 동 : 토요일 오후 7시 미사 및 대축일 미사 (유튜브 '명동대성당 3545+카이로스 성가대')

·모집기한 : 8/23(토)까지 입단 신청서 및 교적증명서 제출 (홈페이지 단체모집 게시판 참조)

·문 의 : 카카오톡 오픈채팅 ☞ 명동성당 카이로스성가대

● **웅기장학회 월례미사**

웅기장학회 월례미사는 선종하신 김수환 추기경님과 회원들의 조상들의 영혼을 위해서 회원들의 가정을 위한 지향으로 봉헌됩니다.

·일시/장소 : 7/28(월) 오전 11시 / 패밀리아 채플

·주례 : 소현준 신부님 (박신언 몬시뇰 공동집전)

·강론 : 정영진 신부님

·문의 : 웅기장학회 사무국 ☎ 727-2525

생미사·연미사 지향 신청 방법 안내

생미사·연미사 지향 신청은 본당 사무실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온라인·전화 신청 및 사무실 대리 신청 불가!). 주교좌 성당이기에 연중 특별한 지향으로 봉헌되는 미사가 종종 발생하고, 여느 본당보다 신청자가 많아 신청 마감 시간이 있습니다.

요일별 마감 시간 이후부터는 다음 날 오후 미사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원하시는 날짜 사흘 전까지 방문하시면 마감 시간에 국한되지 않고 여유롭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 아래 내용 숙지하시어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사무실 방문 신청**

· 화~금요일 : 오후 4시에

당일 오후 6시·7시 미사 ~ 다음 날 오전 7시·10시 미사까지 접수 마감

· 토요일 : 오후 4시에

당일 오후 6시·7시 미사 ~ 일요일 오전 7시·9시·10시·11시 미사까지 접수 마감

· 일요일 : 오후 2시에

당일 오후 미사 ~ 월요일 오전·오후 미사 & 화요일 오전 7시·10시 미사까지 접수 마감

☞ 월요일은 성당 사무실이 휴무이므로 월요일 오전과 오후 미사 모두 오후 2시에 함께 마감됩니다.

❖ **법정 공휴일 미사 신청**

법정 공휴일(설 연휴·삼일절·선거일·어린이날·부처님 오신 날·현충일·추석 연휴·개천절·한글날)과 근로자의 날은 성당 사무실 휴무입니다. **휴무일 전후로는 사무실 방문 신청 마감 시간이 평시와 다를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어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휴무 기간 중 일요일과 1월 1일, 8월 15일, 12월 25일은 정상근무합니다.)

❖ **대성전 현장 신청**

· 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6시 미사, 화~토요일 오전 10시 미사에 한해 현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성전 입구에 비치된 미사예물 봉투를 작성하시고 예물을 담아 제대 앞에 놓인 생미사함(연미사함)에 **미사 시작 10분 전까지 제출**하십시오. 미사 전 수거하여 사무실에서 미리 접수된 지향자 명단과 함께 신부님께서 추가로 호명해 주실 것입니다.

☞ 지향자가 가톨릭 신자이면 '성(姓)+세례명'으로 호명되고, 비신자일 경우 '성명(姓名)'으로 호명됩니다.

❖ **신청 불가한 미사**

- 주일 및 의무 축일 낮 12시 교중미사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 매월 마지막 목요일 오후 7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미사

- 평일미사가 사제 또는 교우의 장례미사로 봉헌될 때

- 평일미사가 교구로부터 하달된 특별한 지향으로 봉헌될 때

❖ **연미사 신청만 가능한 미사**

- 매년 명절(설·한식·한가위)과 위령의 날(11월 2일) 봉헌되는 모든 미사는 '합동 위령미사'로만 봉헌되어 생미사 신청은 불가하고, 지향자 호명은 하지 않습니다.



774-1784(☎)
753-1784(FAX)
본당 연령회
010-6375-1784

진주교시울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주 임 조성 풍(아우구스티노) 신부
수석부주임 나창식(안드레아) 신부
청년·문화예술 나연수(안토니오) 신부
선교·교육 문재현(바오로) 신부
전례·성음악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신부
장애인신앙교육 이승규(토퍼스) 신부
외국인전담사목 세베로 이사악(이사악) 신부

| | | | | |
|-------|--------|--------------------|--------------------|---------|
| 미사 성가 | 입당 : 4 | 봉헌 : 251, 512, 213 | 성체 : 166, 187, 156 | 파견 : 77 |
|-------|--------|--------------------|--------------------|---------|

◎ 2025년 8월 예비신자 교리반 (6개월 과정)

| 교리반 | 시 간 | 장 소 | 강 사 |
|-----|---------|------------|----------------|
| 금요반 | 오후 7:30 | 교구청본관 402호 |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신부 |

- 매주 2시간 교리수업, 주일미사 참례 필수
- 환영식 : 8/10(일) 오전 10시 교구청본관 501호
- 첫 수업 : 8/22(금) 19:30
- 전화·사전 신청 불가
- 준비물 : 교재비 2만원, 반명함판 사진 1매

◎ 8월 예비신자 환영식 : 8월 10일(주일) 오전 10시

8월 예비신자 환영식은 예비신자 교리학교 방학기간으로 인해 한 주 순연되며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 8월에는「유아세례, 병자영성체」가 없습니다.

◎ 8월 연령회 회합 없습니다.

◎ 천사(천원의 사랑)가 되어 주세요!

- 7/6(일) 천사 모금액 11,322,000원
본당지원 1,132,200원
- 7월 천사의 사랑기금(12,454,200원)은 ‘(재)라파엘나눔’에 전달하였습니다.
- 8/3(일)에도 여성복지 관련시설인 ‘마음자리’ ‘목포 성모의집’ ‘셋별자리’를 위한 천사가 되어주세요!

◎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매월 네 번째 주일 오전 11시 미사에는 본당 성소자들과 후원 회원들을 위한 지향이 봉헌됩니다. 성소후원회는 사제가 되기 위해 신학교에서 수학하는 신학생들과 성소자들을 후원하는 단체입니다. 사제·수도자 양성을 위하여 많은 기도와 참여 바랍니다.

◎ 2025년 하반기 견진성사 신청

- 견진성사 : 10월 26일(주일) 오후 2시 / 대성전
- 교리시간 : 9월 7일 ~ 10월 20일 (매 주일) 6주간
(☞ 10월 5일 휴강)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 대면 수업
- ★★ 오후 1시 40분까지만 출석으로 인정,
6주 모두 참석 시 견진성사 가능 ★★
- 신청대상 : 가톨릭에서 세례성사를 받고 첫영성체를 한 20세 이상 교우.
단, 세례성사를 받고 3개월이 지난 교우 (2025년 6월 세례자)까지 신청 可

· 교리장소 : 포스트홀

· 신청방법 : 사전·온라인·전화 신청 불가

- ① 현장 접수 : 8월 10일·8월 31일(주일) / 성당마당 부스
오전 10시~오후 5시
- ② 방문 접수 : 8월 12일(화) ~ 8월 31일(주일)
본당 사무실 (월요일 휴무)

※구비서류와 유의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글 참고!

◎ 2025년도 상반기 ‘명동발전기금’ 교구 송금액 공시

상반기 동안 많은 분들께서 봉헌해주신 명동성당 종합계획 2단계 기금(☞기부천사 기부금 포함)으로 총 745,943,221원이 모였습니다. 이 봉헌금은 교구로 송금되어 ‘명동발전기금’으로 사용됩니다.

《 우리들의 정성 》

- 교무금 (7/14-7/20).....15,543,000
- 연중 제 16 주일 헌금.....40,733,863
- 감사헌금 (7/14-7/20).....745,000
- 김 노엘라 / 김 라파엘 / 김 로사리아 / 김 마태아
- 김 요셉 / 박 안드레아 / 박 안젤라 / 이 카타리나
- 임 사무엘 / 전 마리안나 / 조 이냐시오로올라
- 익명(1)

| | | | | | | | |
|------------------------|------------|---|---------------------|-----------------------------------|---|---------------------|---|
| 미사 (Mass) | 주일미사 (일요일) | 07:00, 09:00(English Mass), 10:00(아미쿠스 주일학교와 함께하는 미사), 11:00, 12:00(교중미사), 16:00, 17:00, 18:00, 19:00(청년미사), 21:00 | | 유아 세례 (Baptism of Infants) | | 주일헌금 봉헌 QR 코드 | |
| | 주일미사 (토요일) | 18:00, 19:00(3545+ 청년미사) | | 고해상사 (Confession) | | | |
| | 평일미사 | 월 | 07:00, 18:00 | | 토-일 | | 10:00 - 20:00 |
| | | 화-금 | 07:00, 18:00, 19:00 | | 화-금 | | 11:00 - 20:00 |
| | 성지미사 | 토 | 07:00 | | 월 | | 13:00 - 17:00 (성직자·수도자 대상) ※일반신자는 다른 요일을 이용하십시오. |
| | | 월-토 | 10:00 | | 외국인을 위한 고해상사 (Confession for Internationals) | | |
| ※모든 미사는 ‘대성당’에서 봉헌합니다. | | | | Sun. | 08:30 - 08:50 | | |
| | | | | Sat. | 16:00 - 17:00 | | |

【 1% 행복발견 】 일상 안에서 하느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행복 발견하기’

나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용기로 마음에서 불편한 돌덩이를 치우니 행복합니다.